

건강 칼럼

라돈과 생활수칙

지난해 국내의 한 유명 침대회사의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대량 방출 되는 것으로 확인돼 큰 파장이 있었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 모 아파트 화장실 자재에서 라돈이 검출돼 입주민이 시공사에 자재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으나 시공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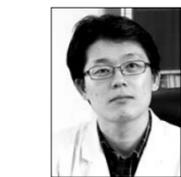
침대나 가구 또는 일상 생활하는 집안에서 라돈이 검출돼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과연 라돈은 무엇이며 우리 인체에 어떻게 유해한지, 라돈의 안전한 기준 농도의 수치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라돈(Radon·원소기호 Rn)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자번호 86번 원소 물질로 색과 맛, 냄새가 없으며 보통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공기보다 7.5배 무거우며 헬륨이나 네온처럼 다른 원소들과 잘 결합하지 않는 불활성 기체이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238U)과 토륨(232Th)이 방사성 붕괴되며 만들어



김이곤

구암현의원 원장

진 라듐(226Ra)이 다시 방사선 붕괴했을 때 만들어 진다.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 등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로 이 또한 방사성 붕괴되면 방사선을 방출하며 폴로늄(218Po)으로 변하고 폴로늄은 다시 방사성 붕괴해 안정된 납(206Pb)으로 변한 후 더 이상 방사성 붕괴를 하지 않는다.

문제는 라돈이 폴로늄과 납으로 붕괴되면서 방출하는 방사선이 세포나 인체조직에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각종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라돈은 기체상태의 가스이기 때문에 라돈의 인체 노출경로 중 95%는 밀폐된 실내공기의 호흡을 통해 이

뤄진다.

호흡을 통해 체내 흡수된 라돈은 폐에 들어오면 기관지나 폐포에 침착하고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이는 염색체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을 유발한다.

또한 그 붕괴 생성물인 폴로늄이 방사성 붕괴되면서 최종적으로 납이 폐에 침착된다.

라돈의 전 단계물질인 우라늄은 지질에 따라 그 농도는 다르지만 어디에나 존재하며 우리나라에서 라돈 가스 상태로 나온다.

따라서 토양이나 콘크리트, 석고보드, 석면슬레이트 등 건축자재 중에 존재하게 되는데 특히 화장실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라돈의 농도를 실내 권고 기준 4pCi/L(4피코큐리)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피코큐리(pCi)는 라돈 등 방사선 측정단위로 1(Ci)는 라돈 1g이 1초동안 방출하는 방사능의 양이며 피코큐리는 1조분의 1큐리를 말한다.

라돈에 노출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라돈이나 그 전 단계 물질을 고농도로 함유하는 암석이나 토양 지가 물질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라돈 등 방사성 원소 기준치 이상 포함된 원료로 만든 가구와 건축자재를 피하는 게 좋다.

또한 라돈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환기이다.

라돈은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실내를 환기하면 라돈의 농도가 율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라돈 농도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바닥이나 벽 등에 갈라진 틈이 있나 확인해 봐야한다.

보강재 등을 이용해 갈라진 틈새만 잘 막아도 실내 농도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

독자제언

도로 위의 무법자 렉카, 안전운행 필요

도로 위의 무법자 렉카,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서슴치 않고 달리는 현상이다.

긴급자동차 특례 규정을 보면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시각, 끼어들기 등 신속히 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들이 있는데 렉카 차량은 긴급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현장으로 갈 때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해야 된다.

최근 렉카 등 특수자동차의 난폭운전 및 보험사직원 폭행 사례 발생으로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은 것을 알고 있는가?

렉카차량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으로써 교통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구난차(렉카)에 대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주요법규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도내 3월 한 달동안 특별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갓길이나 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 대기 행위 단속,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 행위 단속할 예정이다.

남원경찰서는 관내에 위치한 견인업체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서한문 발송을 하고,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업주의 고충 청취 및 자발적인 법규준수 유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렉카 운전자는 요즘 업체가 많이 생기면서 빨리 가지 않으면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법규를 위반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더 큰 사고로 유발할 수 있어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렉카차량은 사고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가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무법을 범하지 않아야 하며,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김민지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건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英 의회, 노딜 브렉시트 거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3일 런던 의회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영국 의회는 이날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가 연기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사설

군산의 봄은 언제 오는가

군산의 봄은 언제 오는가.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봄이기에 군산시민들은 춘래불사춘을 말하고 있을 터이다. 옛그제 전북도의회 3월 임시회에서 지적의 소리가 나오더니 군산에 대한 위기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불만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군산에 대한 특별 예산이 필수 효과라는 것이다. 긴급지원이라지만 죽어가는 기업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동 떨어진 사업까지 책정돼 실질적인 군산살리기 예산이 과대포장 됐다는 것이다. 적체적소에서 효과를 내줘야 하는데 그런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래서 여기 또다시 말해야겠다. 군산이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한 시점이다.

군산시민을 포함해 도민들은 무조건 추진 여론이 높다. 얼마 전에 광주형 일자리가 극적 타격을 본 까닭도 있지만 군산 지역의 경제가 여전히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산형 일자리가 아직까지도 확정적이지 않다. 후보 물망으로서 떠오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또 군산시민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번에 군산 살리기를 확실히 해야겠다.

전북을 위해서 전북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군산을 위해서는 군산형 일자리가 더욱더 필요하다.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조그 지원이 그저 원론적인 말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었는데 오늘날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조선과 자동차를 살린다면 이와 무관한 토목 공사비를 무더기로 편성 했는데 그나마 17% 미집행이라는 도의회의 지적을 귀 아 뜨게 들어야 한다. 군산의 봄이 오게 하려면 전북도와 군산시는 판단을 잘해야 한다 현대조선소가 재가동이 될지도 모른다는 미련 섞인 말이 있었는데 그 사실 여부가 궁금하다.

그리고 군산 GM 쪽도 그렇다.공장 정문이 굳게 닫힌 채로 오가는 사람도 없고 차량도 없는데 공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공장이 폐쇄 되면서 1만5천 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는데 그들을 위해 어떻게 일자리 마련을 하겠다는 말도 없다. 그러면 곤란하다. 전북도는 군산의 봄을 위해경제 진단을 확실하게 해야겠다.

고용 쇼크를 극복해야겠다

전북의 일자리 감소가 대단히 심각하다. 관청은 일자리가 거듭 거듭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군산과 남원과 익산과 전주에서 연거푸 안 좋은 사태가 누적된 결과이다. 관청은 일자리의 감소의 여파로 고용의 질도 형편없이 떨어졌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관청은 일자리라고 할 수 없는 일용직만 늘어났던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기간산업의 역할을 해주었던 자동차 분야도 문제가 심각하다. 일자리 감소 폭은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한다니 말이다. 전북 경제는 지금 고용 쇼크로 비틀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도는 지금의 일자리 난국을 돌파해야만 한다. 일자리 창출을 최고 현안으로 정해 일자리 현황을 늘 파악해 두고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량 실직 피해자들이 풀이 죽어 있는 지금, 전북도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도대체 희망의 근거랄 게 전혀 없는 어둠 터널 형국이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우선순위의 관심사를 정하고 그에 힘을 집중해야겠다. 가장 시급한 현안에 우선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당부이다. 기회

가 있을 때마다 말했던 바 그 우선순위의 현안은 바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전북이 갈수록 희망과 반비례하여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니 유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전북 자존 시대를 만들고 전북대도약 시대를 말했다. 지역의 미래를 선도해야 할 이들의 책임이 크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이란 시급한 현안에 역적스러움을 보여야겠다.

다른 광역 지자체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거나 최소한 현상유지라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전북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전북도는 그 이유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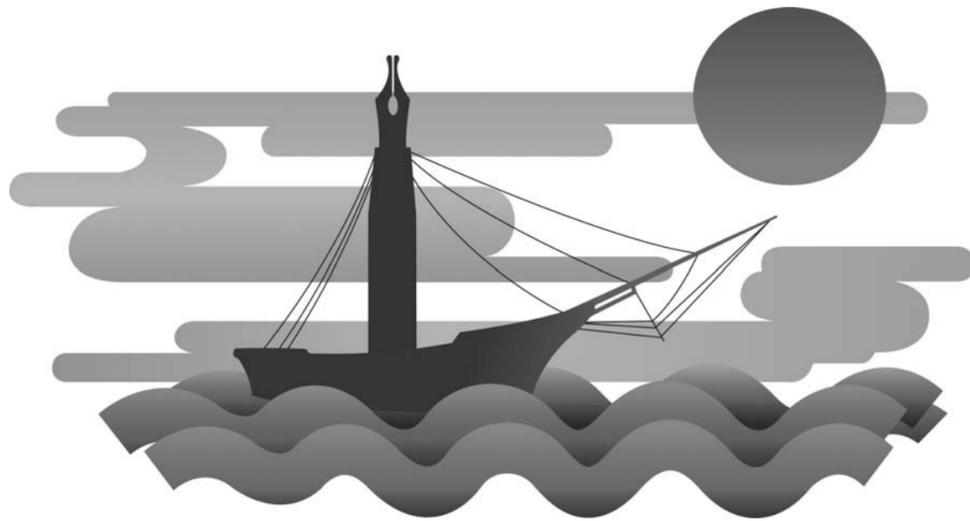
전북도가 대도약의 시대를 열려고 했지만 일자리 창출도 어렵고 고용도 불안하다면 그것은 관한 소이다. 전주에서만도 해마다 3천 명의 젊은이들이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전북 지역의 현주소가 늘 이러므로 도민들은 마음 고생이 심하다. 전북도는 잃어버린 일자리 만큼 재투자를 되찾기 위한 행보를 힘차게 보여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